지역 中企 우수상품 FTA 타고 세계로

광양 청매실농원·첨단산단 ㈜나눔테크 'FTA활용 중기 경진대회' 성공사례 선정

#1. 광양청매실농원 영농조합법인은 매실로 청매실농축액·매실고추장장아찌 등 가공식품을 생산해 미국·호주로 수출하는 전남지역 대표 식품제조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8년 100만달러 이상 수출했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로 지난해 수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전직원이 동분서주하던 지난 3월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이 농원으로 봉사활동을 왔다. 농원 직원들이 수출량 급감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본 세관 직원들은 바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준비를 도와줬다. 그 결과, 주력 수출품인 청매실농축액의 관세율은 11.2%에서 5.6%로 인하됐고, 물품취급 수수료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얻는 원가절감은 매년 2000만원 가량이다.

#2. 광주 첨단산단 내 (주)나눔테크. 첨단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으로, 응급의료기기에 한방 진단기를 접목하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했다. 나눔테크는 한·EU FTA 발효 2년전부터 노령인구가 많고 생활수준이 높은 EU시장에 주목, 유럽형 제품 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FTA 발효와 함께 수입관세가 1.7%에서 0%로 철폐돼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또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잠재 바이어들에게 제품 테스트를 받아 신뢰성도 확보했다.

그 결과, 7개국 22개사와 거래선을 텄고, 지난해 말 약 50만달러의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관세청이 공동 주관한 'FTA 활용 중소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광주·전남 중소기업들 얘기다. 이 대회에서 광양청매실농원은 최우수상을, 광주 나눔테크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 기업의 성공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와 관세청의 지원이 있었다. 수출지원센터의 FTA 컨설팅과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해외 규격 인증 등을 획득했다. 또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큰 도움이 됐다.

이들 기업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원산지 증명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려면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에게 관세 철폐 효과를 알리는 사전 정지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쌍리 광양청매실농원 대표는 "FTA를 이용한 원가절감으로 우리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산업에 새로운 판로를 열어준 사례가 됐다"며 "농어촌도 FTA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는 "최근 프랑스 JPO테크놀로지에 3년간 800만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외 시장 개척에 FTA가 큰 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계약을 위해 견본주택을 찾은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화정주공 조합원 97% 계약

9~10일 추가 계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되는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의 조합원 계약률이 97%를 기록, 성황을 이뤘다.

6일 현대건설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계약을 지난 5일 마감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7%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계약비율이 평균 75% 선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것이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조합원 계약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계약 의사를 표시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최종 확인을 거쳐 9일과 10일 이틀간 추가 계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조합과 광주시는 조합원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 예정된 일반 분양(957가구) 물량에 포함해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속에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견본주택을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면서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마감 인테리어 등 조합원들이 만족해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대의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15만6312㎡의 부지에 지상 15~33층, 전용면적 59㎡(25평형) 390가구, 84㎡(34평형) 3126가구, 101㎡(40평형) 210가구 등 총 3726가구 규모다.

모델하우스는 서구 마륵동 세정아웃렛과 전자랜드 옆에 있다. 분양 문의 1899-099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돈가뭄' 기업들 7월 회사채 발행금액 급증

7월 회사채 발행금액이 기준금리 인하와 기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에 힘입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달 회사채 전체 발행규모가 13조6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달에 비해서는 10.9% 증가한 금액이다.

유형별로 일반회사채가 8조4485억원으로 전달 대비 23.9%, 전년 동월대비 107.4% 늘었다. 금융회사채는 5조1771억원이 발행돼 지난달보다 5.4%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11.4% 증가했다.

발행목적별로는 운영자금이 5조461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시설자금(4583억원), 만기상환을 위한 차환발행(2조4568억원), 용지보상(146억원) 등이 이었다. 발행금액 상위 회사는 현대중공업(7000억원), 경기도시공사(6972억원), 대우조선해양(5000억원) 등이었다. 또 상위 10개사가 총 3조9272억원어치를 발행해 일반회사채 전체 발행액의 46.5%를 차지했다.

예탁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회사채 수요가 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하반기 경기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증가해 회사채 발행시장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업 하반기 공채 9월에 몰린다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9월에 몰려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뽑은 380개사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56.8%가 9월에 서류접수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8월에 공채를 진행한 기업은 8.2%, 10월은 20.3%, 11월은 7.6%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 채용시기는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 만큼 올해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9월에 채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잡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올해 삼성그룹과 두산그룹 등도 다음 달부터 하반기 신입 공채에 돌입한다. 삼성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간 서류를 접수하며 두산그룹은 1일부터 20일간 지원서를 받는다. /연합뉴스

삼성 에어컨, 이탈리아 최고 브랜드 인정

삼성전자는 6일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에어컨이 이탈리아의 저명한 기업정보 컨설팅회사인 데이터뱅크의 'Company to Watch'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데이터뱅크사가 성장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는 일리(커피분야), 레고(장난감분야) 등이 함께 뽑혔다.

삼성전자는 에어컨 분야에서 지난 3년간 연 평균 29%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인버터 제품 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간 연장, 완벽한 에어컨 설치를 위한 현지 교육장 운영 등 현지화된 마케팅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85.88 (+37.20)
▲ 코스닥지수	469.61 (+4.33)
▲ 금리 (국고채 3년)	2.78% (+0.01)
▼ 원·달러 환율	1,129.00원 (-5.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7월 광양항 컨 물동량 17만3000TEU

작년 동월보다 0.8% 감소

지난 7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늘어난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 추청치는 190만6000TEU로 지난해 같은 달(189만9000TEU)에 비해 0.4%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입화물은 세계경기 위축, 내수부진 등으로 하반기 국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115만4000TEU로 전년 동월(13만TEU) 대비 1.1% 감소로 전망됐다.

환적화물은 72만9000TEU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작년 7월(69만6000TEU) 대비 4.7% 늘어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증가한 146만4000TEU를, 환적화물은 5% 늘어난 70만2000TEU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은 중국 등 아시아 주요지역의 물동량이 증가한 반면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미국의 수출입 물량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감소한 17만3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항은 처리비중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등의 교역량 감소로 작년 동월대비 6.4% 감소한 16만TEU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다. /연합뉴스